전계획 등을 주요의제로 다루게 된다. 협회는 현재 회원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고 있는데 참가비는 체제일정 및 숙박형태에 따라 6박7일(9. 30~10. 6)코스가 미화 1,000~1,300불, 4박5일(10. 2~10. 6)코스가 800~1,100달러로 체재기간중 하루는 인도 고아 관광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 행사를 주최하는 영연방건축연맹은 지난 1965년 7월 말타에서 설립돼 현재 세계 38개국에 4만4천여 회원을 두고 있다.

건축계소식 news wide

건축감리회사 설립기준 완화

올해 후반기부터 감리전문업체의 등록기준 및 대표자자격 대폭 완화

오는 7월이후에는 감리전문업체의 등록기준과 대표자자격이 대폭 완화돼 감리회사 설립이 지금보다 쉬워지는 한편 감리원의 책임한계가 명료해지며 감리원 작성서류도 현재보다 간소화된다. 또한 올 상반기이후에는 건축감리회사의 경우 현재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것을 개정, 건축시공기술사도 대표가 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지난 3월 16일 건설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리업계의 전문기술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지나치게 까다롭게 만들어진 감리업체의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해 감리전문업체의 설립이 증가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감리업체가 부문별로 특화된 전문영역 구분이 없이 업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전문기술 축적이 안된다고 분석하고, 일단 감리전문회사의 설립을 적극 유도해서 전문화를 시켜나갈 계획이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종합감리회사의 경우 현행 등록기준이 자본금 10억원에 인력 50명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이를 5억원에 30명으로 낮출 방침이다. 또한 토목·건축감리전문회사는 현재 자본금 3억원에 30명의 인력을 갖춰야 하나 앞으로는 인력 15명에 자본금 1억5천만원으로 절반을 줄일 예정이다. 또 설비전문감리전문회사는 현재 인력 20명에 2억원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차후에는 자본금 1억에 인력 10명만 있으면 설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감리원의 업무영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를 주관업무와 협조업무로 구분해 나갈 방침이다.

부실설계·부실감리 손해배상보증제도 시행

7월부터 단계적으로

지난 3월 19일 건설교통부는 부실설계나 부실감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는 보증제도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현실적으로 부실설계나 부실감리가 발생해도 대다수의 설계사무소와 감리회사가 이를 배상할 만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해 제대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보고 우선 1단계로 7월부터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손해액을 배상하는 보증제도를 도입한 후 앞으로 배상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보증기간을 공사착공 시점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로하고 보증수수료는 설계나 감리원가에 반영토록 했다. 손해배상보증제도의 도입은 이미 지난 1월 건교부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이를 명문화하고 보증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바 있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설계회사들이 설계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프로젝트보험을 통해 설계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설계기준 표준화

6월부터 표준화설계기준 적용 공동주택에 한해 실시계획 승인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25일 건설분야 표준화 추진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건설분야 표준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확정된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표준화 설계기준이 적용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한해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우체국, 경찰서, 학교, 지자체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표준화 설계기준은 오는 9월까지 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표준화가 완료된 석고판, 보통합판 등 18종의 자재를 대상으로 사용이 의무화되며 내년 1월부터는 공공건축물에도 표준화설계기준 적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행여부를 설계심의시 확인키로 했다. 건교부가 이번에 확정한 97년도 건설분야 표준화 사업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02년까지 예정된 건설분야 표준화 장·단기 추진계획의 올해분에 해당된다.

홍익대 동문회, 모교에 제도책상 기증

모교 건축학과 발전 위한 기금 모아

홍대 건축학과 동문회(회장 오기수)에서는 제40회 졸업생 배출과 홍익건축전을 기념해 그간 모교 건축학과 발전을 위해 모은 기금으로 5천만원 상당의 설계제도책상 300개를 구입해 이를 지난 3월 14일 학교측에 전달했다. 또 홍익대 건축학과는 설계교육에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 김기철(동명건축), 이상헌(이가건축), 정명원(서울건축), 유원재(다건축), 한충국(진양건축), 최재희((주)건원), 천근우(Studio P&P) 씨 등을 겸직교수로 선임했다고 밝혔는데 이로써 현재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진은 전임교수 10명을 비롯해 겸직교수 7명과 전공별 강사들로 구성되게 되었다.

한 · 영 만남 200주년 기념 건축세미나

이달 18일부터 '미래도시 건축전' 도 열려

한 · 영 만남 200주년을 맞아 주한 영국대사관과 영국문화원은 영국 왕실 글로체스터 공작 방한에 즈음해 영국 왕립건축가협회와 영국 통상성 주최로 건축세미나 및 전시회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오는 4월 18일 오전 9시부터 호암 아트홀에서 개최되며 전시회는 'Crities of Future(미래 도시 건축전)'란 주제로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세미나 및 전시회 입장은 무료이며 세미나 참석자에게는 간단한 음료와 식사가 제공된다.

문의 : 영국대사관 상무과 이지영(02-735-7341)

영국문화원 Ms Lily Ficko(02-737-7157)

하버드 아시아 · 태평양 디자인 콘퍼런스

위가건축 민선주씨 주제발표자로

민선주(위가건축 대표)씨가 하버드 건축대학원 아시아계 학생들이 주최하는 「Havard Asia Pacific Design Conference(아시아 건축과 도시에 관한 학술토론회)」에 학생들이 선정한 올해의 한국건축가로 초대되었다. 민선주씨는 '아시아의 도시화 - 변화와 연계'를 주제로 오는 4월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하버드대 디자인 대학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술토론회에서 함께 초대된 김태수, 김준성씨 등과 함께 '한국의 도시미학'이란 주제로 주제발표를 하며 또한 세계 각국의 60여 학자 및 건축가들과 토론회를 갖게 된다.

건축역사학회 특별학술발표회

'건축문화유산의 현재적 재조명'을 주제로

한국건축역사학회에서는 오는 4월 19일 오전 10시부터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건축문화유산의 현재적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박표회에서는 장경호 경기도립박물관장과 안경모(신흥전문대), 김봉열(국립한국예술학교 미술원), 김성우(연세대) 교수 등이 건축문화유산의 의미와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며 이어 오후 3시30분부터는 종합토론이 열린다.

「제2회 건축비평상」 심사결과 발표

우수작 없이 가작 등 3점 선정

건축비평 무크지를 발행해온 현실비평연구소가 제2회 건축비평상 공모전의 수상작을 선정, 발표했다. 지난 2월에 작품을 공모했던 이번 공모전에서는 우수작 없이 가작과 입선작만을 선정했는데 가작에는 경희대 건축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김정후씨의 「내다보기, 들여다보기」가, 입선에는 서울대학교 산업대학원 재학중인 오창섭씨의 「이념에서 가능성으로」가 각각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4편이 응모했는데 우리 생활문화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한국학파의 가능성을 기저에 두고 현재를 실제로 비평한다는 공모의 취지를 환기시켰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소득이 있었으나 한국의 문화라는 테마를 조형문화 일반의 현실적 주체군으로 편성하려는 주최측의 의지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데는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것이 자체평이다.

초고층시대 - 시카고건축전

초고층 설계의 현주소에 대한 강연회 열려

초고층시대의 막을 연 시카고건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다.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강석원)는 지난 3월 25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서울 포스코센터빌딩 서관 2층 전시실에서 「초고층 시대 - 시카고의 옵티멈구조의 개념」 전시회를 개최한다. 특히 전시 첫날인 3월 25일에는 전시기획자인 마사미 다까야마 박사를 비롯해 김상경 고려대 교수와 김종성 (주)서울건축 대표가 '시카고학파 그 이후 - 초고층 설계의 현주소'란 주제로 강연을 해 첨단 산업사회의 초고층건물 설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경기대 건축 특강 및 세미나

개교50주년 기념해 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 개최

경기대 건축공학과와 건축대학원에서는 개교 50주년을 맞아 건축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특강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소비시대의 건축설계', '백두대간

남단의 건축문화', '건축비평과 삶의 비평' 등 건축과 밀접한 주제를 가지고 5월 말까지 총 13회에 걸쳐 열리는 이번 특강 및 세미나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강은 수원캠퍼스 건축공학과 시청각실과 서울캠퍼스 건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세미나는 서울캠퍼스 건축대학원 세미나실과 초급 스튜디오에서 각각 열린다.

문의 : 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 (전화 : 02-390-5154), 건축대학원 (전화 : 02-390-5245~6)

■ 특강 일정

- 경험과 인식/조병수(건축가, 경기대 건축대학원 겸임교수)/수원캠퍼스 3. 20(목) 17:00, 서울캠퍼스 3. 14(금) 16:30
- 소비시대의 건축설계/김성홍(건축가, 창조건축)/수원캠퍼스 4. 3(목) 17:00, 서울캠퍼스 4. 11(금) 16:30
- 현대 서구 가구 디자인의 전개와 한국 전통가구의 정신/최병훈(목조형가, 홍익대 교수)/수원캠퍼스 4. 17(목) 16:30, 서울캠퍼스 4. 25(금) 16:30
- 매크로 모델을 통한 디자인과 색채연구/권은숙(KIST교수)/수원캠퍼스 5. 1(목) 17:00, 서울캠퍼스 5. 9(금) 16:30
- Systematic Tectonic/박경수(건축가, POSEC)/수원캠퍼스 5. 22(목) 17:00, 서울캠퍼스 5. 16(금) 16:30

■ 세미나 일정

- 토속기공 한마당/양운하(토속기공 회장)/건축대학원 세미나실, 3. 19(수) 11:00
- Magic & Calculation/김준성(건축가, 경기대 교수)/초급 스튜디오, 3. 21(금) 10:00
- 분장과 감정이입/김기진(분장연구가)/건축대학원 세미나실, 3. 26(수) 11:00
- Logic & Design/정진원(경기대 교수)/초급 스튜디오 3. 28(금) 10:00
- 백두대간 남단의 건축문화/이왕기(목원대 교수)/건축대학원 세미나실, 3. 28(금) 16:30
- 방송과 광고/박홍식(종합유선방송 심의부장)/건축대학원 세미나실, 4. 2(수) 11:00
- 연출의 양식/임경식(연극연출가)/건축대학원 세미나실, 4. 9(수) 11:00
- 건축비평과 삶의 비평/민선주(위가건축, 경기대 건축대학원 겸임교수)/초급 스튜디오, 4. 18 10:00

한국CM협회 창립총회 개최

초대회장에 이내흔 현대건설 사장

건설관리기법(CM)에 대한 전문적 연구개발 · 보급을 위해 설립된 「한국CM협회」창립총회가 지난 3월 27일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이내흔 현대건설 사장이 초대회장에 선출됐다. CM협회는 지난 95년 7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추진준비작업을 해왔으며, 현재 30여 건설업체와 5개 연구기관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

대한건축학회 건축캐드 워크숍 개최

「건축설계과정에서의 모델개발」 등 주제발표

대한건축학회는 지난 3월 28일 사당동 건축학회 대강당에서 「'97 캐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론분야로 '건축설계의 협동작업을 지향하는 지능형 캐드엔진의 개발', '건축설계과정에서의 모델 개발', '건축설계의 효율성 협력을 위한 가상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실행분야로 'CALS체계의 건축분야에서의 적용', 'GIS시스템을 이용한 건축물에서의 Facility Management', 'Web과 건축정보'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건설 · 건축기자재 국제박람회 참관단 모집

파리 INTERMAT전,
모스크바 STROYTEKH '97 참관

세계 각국의 건축박람회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는 리더스산업연구원에서는 오는 4월말 파리와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건설장비 및 건축기자재 국제박람회 참관단을 모집중이다.

참가자들은 오는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파리 건설장비 및 건축기자재전(INTERMAT/Equipment & Techniques for Construction Exhibition)과 모스크바 건축기자재 박람회(STROYTEKH' 97/Int 'l Exhibition Equip & Material for Building)를 직접 참관하게 된다.

파리 INTERMAT전은 3년에 한 번씩 건설자재를 비롯한 기계 및 설비굴착기 장비 등을 종합해 전시하는 행사로 개최국인 프랑스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약 1천 2백여 업체가 참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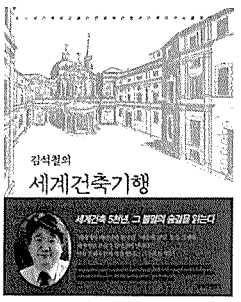
또 러시아 건설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스크바 STROYTEKH '97은 러시아 최대규모의 건축기자재 및 설비 박람회이다. 참가비용은 1인기준 168만원으로 신청마감은 4월 11일까지이다.

문의 : 리더스산업연수원 연수부 (전화 02-725-1707)

건축신간안내

김석철의 세계건축기행/
풍수지리와 건축

◇ 김석철의 세계건축기행



이 책은 「예술의 전당」, 「베네치아 비엔날레 한국관」 등을 설계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김석철(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 대표)회원이 20여년간 돌아본 세계 각국의 도시와 건축물 가운데 탁월할 예술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만을 선정해 소개한, 24편의 재미있는 건축 에세이이자 기행문이다. 이 책에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인 인도의 '타지마할'을 비롯해 시각예술의 정수 '예루살렘 반석위의 돔', 나폴리에 피어난 예언적 도시 건축 '메가리데성' 등 세계적 건축물들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건축의 세계에 빠져들게끔 인도한다. 또 이책은 저자가 대상지역을 돌아다니며 쌓은 감동들을 적은 「건축기행」 이외에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들여다보기」 난을 통해 건축을 쉽게 풀이해 놓았으며 120여 컷의 컬러사진과 50여개의 도면 및 그림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 세계 천년건축의 정수를 만날 수 있다.

창작과 비평사 펴냄/변형 크라운판/304면/1만2천원/문의 :02-718-0543,4

◇ 풍수지리와 건축

「사람은 집의 氣를 받고 살고, 집은 사람의 氣를 받고 산다, 집과 사람은 곧 그 기운을 주고 받으며 공생한다. 따라서 집은 사람과 함께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풍수건축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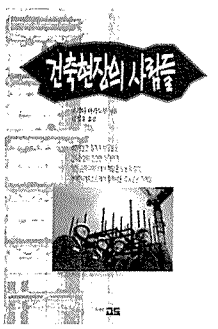
저자인 박시익(도봉건축사사무소 대표) 회원은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전통사상인 풍수지리가 신비적 차원에서 벗어나 내가 사는 집, 우리가 사는 집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30여년간 건축을 하면서 풍수지리를 현대건축의 계획이론으로 정립하고자 노력해 온 저자는 현대건축이 비록 규모와 시설면에서 큰 발전을 해온 반면 '인간적인 공간 창조'란 측면에서는 실패를 거듭해 왔다며 공간을 생명력있는 기운으로 해석하는 풍수지리의 공간이론이 현대건축 이론의 잘못된 점들을 바꿀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책은 '방위에 따른 주택의 길흉', '풍수 인테리어', '풍수지리 이론에 따른 명당설계의 실례', '풍수지리 연구과정' 등 총 1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풍수지리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교재의 역할도 하고 있다.

박시익 지음/경향신문사 펴냄/정가 9천원/문의 : 02-3701-1351~3

◇ 건축현장의 사람들



이 책은 현재 일본에서 건설관련 컨설턴트로 활약중인 오가타 타가노부씨의 '건축현장의 드라마에서'란 책을 기산건설 김성웅회장이 우리말로 옮겨놓은 것으로 저자가 40여년간 일본의 건설현장에서 보고들은 생생한 체험이 담겨있다. 이 책에는 실제 건설현장에서 적용가능한 56개의 에피소드가 7개의 장으로 나뉘어 소개되어 있어 저자의 실질적 현장체험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 · 사회 · 문화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공감을 줄 것으로 본다.

도서출판 고도 펴냄/232면/6천원/문의 : 02-785-2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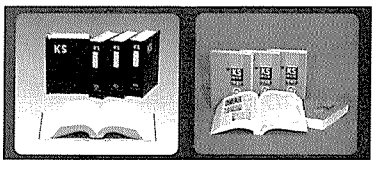
◇ 도시계획, 삶의 문화의 틀짜기

이 책은 저자인 황용주씨가 중앙대 건설대학원 교수직을 정년퇴임하면서 지난 30여년동안 도시계획가이자 정책자문가로 활동하면서 발표했던 연구논문들을 주제별로 재구성한 것으로 산업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공간계획의 역할과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발전방향, 교통문제 등에 남다른 식견과 지식을 지닌 저자의 철학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돼 있는데 제1부에서는 도시계획의 정의와 살만한 도시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또 제2부에서는 도시계획의 지평이란 주제로 많은 도시계획에 직접 참여했던 저자의 경험을 토대로 국내 도시문제를 진단하고 있으며 3부에서는 우리나라 광역개발계획의 구상과 구현을 사례중심으로 통찰했다.

◇ KS건설 특집판 및 핸드북

「KS건설특집판」 및 「KS건설핸드북」은 건설부문의 KS규격을 발췌 · 편집한 것으로 KS규격에 준한 제품생산의 지침서이다. 이 책에는 국가가 지정한 각종 법령 · 시방서 · KS규격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어 현장에서 '기술사전'적 구실을 하고 있다. 특히 KS건설특집판은 구조재료, 철강재, 도료, 내외장 재료, 창호재 등으로 규격정보를 세분화해 놓았으며 KS건설핸드북은 각 권별로 제1권 - 시험방법편, 제2권 - 일반구조/재료제품편, 제3 ~ 5권 - 재료 · 제품편으로 구성돼 있다.

「KS건설특집판」: A4판 / 전10권 / 세트가 2백만원

「KS건설핸드북」: A5판 / 전5권 / 세트가 30만원

문의 : 한국표준협회 02-785-2428